

용인시에 대한 경관인식 변화 비교연구

주신하* · 김경인**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 **(주)브이아이랜드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Landscape Cognition in Yong-In City

Joo, Shin-Ha* · Kim, Gyung-In**

*Dept. of Horticulture, Biotechnology &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Women's University

**V.I. Land Co., Ltd.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hanges made in the landscape cognition in Yong-in City for the past 10 years. For the analysis, the landscape plan in 2001, and the survey data collected for the new 2012-landscape plan were used. The questions on the survey covered the cognition of the current landscape status, the evaluation of landscape depending on the types of landscape, the understanding of each element on the landscape, the residents' cognition, etc.

In the evaluation of the status on current landscape, Everland was ranked outstandingly high as a symbol and a representative place both in 2001 and 2012. The image of the overall city landscape was changed from the image of unique, diverse, grand-scale and well ordered in 2001, to the image of wide, disordered, common and realistic. As the evaluation of individual landscape types such as the view of the mountain, the surroundings of the tourist attractions, colors, etc, has improved overall. The image of the city has been evaluated to improve gradually, especially in the level of individual element. In the study of participating the willingness of residents, despite the interest in landscape has been continued, the attitude for the actual participation in the action plan or the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 has been changed into a negative side. For the direction of the landscape plan, the residents are more interested in the detailed subjects : such as the financial support, the night landscape plan,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s, etc.

During the last 10 years, the changes on the landscape cognition in Yong-in City have changed more in detail and specifically, the cognitions on the local government and developers changed positively. However the reduction of the participants' willingness suggested a review on the policies and the projects of the landscape.

Key Words: Landscape Status, Landscape Types, Landscape Element, Residents Cognition, Participation Willingness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관관련 법제도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최근 10여 년간 경관인식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 수립한 용인시 경관형성기본계획과 2012년 수립한 용인시 기본경관계획 내용 중 경관의식조사 자료가 분석에

Corresponding author: Shin-Ha Joo, Dept. of Horticulture, Biotechnology &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139-744, Korea, Tel.: +82-2-970-5619, E-mail: sinhajoo@swu.ac.kr

사용되었다. 특히 2012년 실시된 경관의식조사는 용이한 비교분석을 위해 2001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경관현황에 대한 인식, 경관유형별 경관평가, 경관요소별 인식, 경관에 대한 주민의식, 경관계획방향 제시에 대한 인식, 경관관련 주체들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관현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용인시의 상징요소와 대표장소로 에버랜드가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에버랜드의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한국민속촌, 시청, 경전철과 같은 다양한 대상으로 비중이 분산되었다. 전체적인 도시경관에 대한 이미지는 2001년 ‘개성있고, 다양하고, 웅장하고, 정돈된’ 이미지에서 2012년에는 ‘넓고, 어수선하고, 평범하고, 현실적인’ 이미지로 변화하였다. 특히 ‘개성있는’ 항목에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하여 개발 초기의 기대에 현재 이미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의 조망, 관광지 주변, 색채 등 개별 경관유형별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어서, 개별 요소 수준에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관요소별로는 간판 및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관색채 측면에서는 상업 및 광고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증가하였으나, 공사시설물, 공장건물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경관과 관련한 주민참여 정도 조사에서는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한 반면에, 재산권 제한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 같은 실제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계획 방향성은 과거에 비해 보다 재정지원, 야간경관 연출, 경관저해요인 개선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였다.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과거 규제 중심의 역할에서 시민지원의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자연훼손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건물 조성, 휴식공간이나 광장의 조성 등을 통하여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인시의 지난 10년간의 경관인식 변화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경관을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경관관련 주체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에 형성되었던 용인시 경관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여 평범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정도가 소극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의 경관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경관현황, 경관유형, 경관요소, 주민의식, 참여의지

1. 서론

2007년 경관법 제정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주신하와 김영희, 2010). 경관법 제정 이전에도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나(김희재 등, 2008; 문지원, 2009), 경관법 제정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경관계획 수립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관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또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 등 다양한 경관관련 계획과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그 동안 다분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앞서 가는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이정형과 이여경, 2008), 지역 주민의 경관에 대한 의식적 측면은 아직 기초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김봉경 등, 2009).

한편, 현행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다양한 경관계획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 경관현황 조사 항목 중의 하나로 경관의식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경관계

획을 수립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은 경관의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2007년 이후 많은 지자체들은 경관에 대한 의식조사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경관에 대한 의식조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법 제정 이후 활발해진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관련 사업들의 시행으로 경관에 대한 일반인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경관계획에서의 주민참여 측면에서 진행한 일부 연구(이경록, 2008; 윤준도 등, 2009; 문지원, 2011)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관인식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용인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도 가장 개발 압력이 높은 지자체 중의 하나로 난개발 논란을 촉발시킨 지역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용인시는 경관법 제정 이전인 2001년에 경관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01). 이 계획에 용인시에 대한 경관인식조사를 포함하였는데, 여기에는 대표경관, 문제경관, 주민참여 정도 등의 내용이 포함

되었다. 경관법 제정 이후인 2012년에 용인시는 법정계획으로 경관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는데,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역시 경관의식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용인시는 경관법 제정 전후로 경관에 대한 다양한 법제도의 차이와 경관에 대한 관심도가 변화하게 되는 지난 10 여 년간의 경관에 대한 인식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용인시를 대상으로 지난 10 여 년간의 경관인식 변화 분석을 통하여, 경관에 대한 문제의식, 경관 관련 주민참여 정도, 경관개선 제감 정도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관의식에 대한 시계열적인 연구로 경관법 제정 이후 진행된 용인시의 경관관련 정책과 사업의 실효성 검증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어 향후 용인시 경관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관련 연구동향 고찰

경관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경관계획의 하나의 단계로 경관인식조사를 분석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부류, 경관인식조사를 통하여 경관행정, 사업, 정책 등에 참여정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경관계획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경관인식 연구 등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경관계획의 하나의 단계로서 경관의식조사를 진행한 주요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김이수 등(2006)은 충청북도 공무원과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경관의식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장혜선과 변혜선(2009)은 청원군을 대상으로 기본경관계획 수립특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경관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장혜선 등(2010)은 시지역인 청주시를 대상으로 마찬가지로 경관의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는 아니지만 손용훈과 윤문영(2011)은 근교도시의 녹지경관의 보전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고찰하기 위해 일본의 마츠도시를 대상으로 공간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지의 녹지경관을 유형화하고, 녹지경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녹지경관평가와 요인분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보다 종합적으로 여러 지자체의 경관계획의 경향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김희재 등(2008)은 경관법 제정 이전의 비교적 최근에 작성된 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의 구성 내용을 분석하여 앞으로 새롭게 작성될 경관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주신하와 김영희(2010)는 중요도-성취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각 단계별 지침 내용의 유효성과 현실적용 정도 등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관인식조사를 통하여 경관행정, 사업, 정책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곽동윤(2005)은 일본 지바시의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경관교육방식을 분석하여 운영적 측면, 방법적 측면, 교육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도시경관행정에 있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 가능하도록 방법을 모색하였다. 문지원(2011)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어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경관계획 수립 시 적용 가능한 항목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경관계획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관계획 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박은아 등(2011)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주체 간의 갈등관계, 구조, 내용을 분석하여 협력적 계획의 유용성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경관인식 연구로 변재상 등(2010)은 대전시 시민들이 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지를 다차원척도법과 대응일치분석을 이용하여 도시 이미지 관련 정책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황재훈과 류경무(2001)는 전문가와 이용자 집단별 상이한 지각과 선호패턴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소를 도출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도시환경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다. 조유경 등(2011)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경관제어요소들에 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기존 경관제어요소들이 경관계획에 활용됨에 있어 타당성과 방법론을 재검증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경관인식조사를 계획의 단계로 인식하거나 참여정도를 파악하려는 도구, 또는 계획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한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경관인식조사는 조사 시점에서의 대상 경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겠으나, 경관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과거와 현재의 경관에 대한 시계열적인 분석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인시를 대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경관법 제정, 경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대 등과 같은 다양한 변화 요인이 발생한 최근 10 여 년간의 경관인식 변화를 2001년과 2012년에 진행된 경관의식조사 자료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지 선정

경관인식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시점에서 조사된 경관의식조사 자료가 필요하

였다. 경관법이 2007년에 제정되어 대부분의 지자체 경관인식 조사 자료는 2007년 이후에 작성되어 현 시점과 차이를 비교하기에는 시간차가 충분하지 못하여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급적 경관법 제정 이전에 자체적으로 경관관련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의 경관인식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용인시는 이미 2001년에 경관형성기본계획(경기개발연구원, 2001)을 수립하면서 경관인식조사 자료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현 시점에서의 경관인식 조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경관계획, 경관사업 등 경관관련 활동이 활발히 진행된 지난 10여 년간의 경관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설문지 구성

2001년 조사를 위한 설문구성은 기존 국내 지자체대상 경관인식 조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1994a, 1994b; 김포시, 1999; 경기개발연구원, 2000)와 일본 지자체 대상 경관인식 조사(도쿄도, 1994; 도쿄도 기타구, 1994; 지바시, 1997; 가와사키시, 1996; 샌다이시, 1997)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2012년 설문지 구성을 위해서는 경관계획수립지침(건설교통부, 2007)을 참고하고, 2001년 조사된 설문자료와의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경관현황에 대한 평가, 경관훼손 요인에 대한 인식, 개별 경관요소에 대한 인식,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 경관계획 방향 제시에 대한 인식, 경관관련 주체들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세부 설문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표 1. 설문 문항 구성

구분	세부 문항
경관현황에 대한 인식	용인시의 상징 대상
	용인시 대표 장소(자랑하고 싶은 곳)
	용인시 훼손 장소(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
경관유형별 경관평가	전체 도시경관에 대한 인상
	개별 경관유형별 평가 도시 경관유형별 훼손 요인 (산립경관, 하천경관, 도로경관)
도시 경관요소에 대한 인식	간판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가로시설물에 대한 인식
	경관색채에 대한 인식
경관에 대한 주민의식	재산권 제한에 대한 인식
	경관사업 참여의사 경관에 대한 관심도
경관계획 방향 제시에 대한 인식	경관개선의 목표상
	매력있는 도시만들기 방안
경관관련 주체들에 대한 인식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및 평가

3. 경관인식 설문조사 및 분석

2001년 진행된 경관인식조사는 2000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012년 진행된 조사는 2012년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들에 의해 용인시 주요 광장과 해당 읍면동에서 진행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 용인시 시민은 읍면동별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표집될 수 있도록 층화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방문자,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의 경우 무작위추출법에 의해 표집되었다. 2001년 설문에서는 총 1,500부의 설문응답을 얻었으며, 2012년에는 총 518부의 설문응답을 얻었다. 2001년 응답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총 1,46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001년 및 2012년에 조사된 설문자 특성은 표 2와 같다.

서로 다른 시점에서의 경관인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t*-test 분석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SPSS Ver. 12.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경관현황에 대한 평가

1) 용인시 경관의 상징요소

용인시를 상징하는 요소에 대한 설문을 다중 선택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001년 조사에서는 1순위로 에버랜드(41.7%)로 용인시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민속촌(10.9%), 골프장(5.6%), 난개발(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자의 경우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 에버랜드가 용인시 상징요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57.1%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들에게는 난개발과 아파트 등과 같은 개발관련 대상이 인지도가 다른 설문대상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 참조).

한편, 2012년 조사에서는 용인시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에버랜드가 30.6%로 역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다

표 2. 설문대상자 특성

구분	2001년		2012년	
	응답자 수	비율(%)	응답자 수	비율(%)
용인시민	1,100	73.4	179	34.6
방문자	200	13.3	52	10.0
공무원	150	10.0	152	29.3
사업시행자	50	3.3	135	26.1
계	1,500(1,467)	100(97.8)	518	100.0

* ()은 유효 설문분수

표 3. 용인시 상징요소

구분	2001년 조사결과	2012년 조사결과
시민	에버랜드(39.1%), 한국민속촌(21.7%), 난개발(6.3%), 골프장(5.3%)	에버랜드(45.0%), 한국민속촌(20.5%), 대학교(9.3%), 시청(5.3%)
방문자	에버랜드(57.1%), 한국민속촌(11.9%), 골프장(4.4%), 대학교(4.4%)	에버랜드(39.5%), 한국민속촌(15.1%), 아파트(4.7%), 골프장(3.5%)
공무원	에버랜드(39.6%), 한국민속촌(18.8%), 골프장(9.4%), 난개발(3.5%)	에버랜드(37.0%), 한국민속촌(22.0%), 경전철(5.0%), 아파트(5.0%)
사업 시행자	에버랜드(39.4%), 한국민속촌(21.2%), 난개발(12.1%), 아파트(6.1%)	에버랜드(30.6%), 한국민속촌(14.9%), 시청(6.3%), 경전철(4.3%)
전체	에버랜드(41.7%), 한국민속촌(10.9%), 골프장(5.6%), 난개발(5.2%)	에버랜드(30.6%), 한국민속촌(14.9%), 시청(6.3%), 경전철(4.3%)

음으로 한국민속촌(14.9%), 시청(6.3%), 경전철(4.3%), 아파트(3.9%), 골프장(2.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001년에 비해 에버랜드의 비중이 낮아진 특징을 보여주었으며, 2001년 이후에 조성되었거나 공사 중에 있는 시청과 경전철이 용인시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새롭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응답자 유형별로는 역시 방문자의 경우에 에버랜드를 강하게 상징요소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이나 사업시행자에게는 경전철이 상대적으로 강한 인지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방문자와 사업시행자에게 시청이 강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1년과 2012년 조사에서 모두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이 용인시를 대표하는 대상으로 강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청이나 경전철과 같은 2001년 이후 진행된 사업들로 인해서 새로운 상징요소들이 등장하여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의 인지도가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그 외에 2001년에는 난개발이나 골프장과 같은 대상이 용인시를 상징하는 요소로 주목받은 것으로 보이며, 2012년에는 새로 건설된 경전철과 시청 등이 용인시 상징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용인시 대표장소(자랑하고 싶은 곳)

용인시에서 자랑하고 싶은 장소에 대한 설문을 역시 다중 선택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용인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곳이나 권하고 싶은 좋은 곳에 대한 2001년 조사에서는 에버랜드(48.7%)와 한국민속촌(25.8%)을 들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설문응답자 유형별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에서도 에버랜드가 44.9%로 역시 가장 좋은 장소로 분석되었으며, 한국민속촌(19.5%), 자연휴양림(5.6%), 단국대학교(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 조사에 비해서

표 4. 용인시 대표 장소(자랑하고 싶은 곳)

구분	2001년 조사결과	2012년 조사결과
시민	에버랜드(44.2%), 한국민속촌(26.3%), 광고산(5.6%), 와우정사(2.1%)	에버랜드(46.5%), 한국민속촌(23.7%), 단국대학교(7.9%), 한택식물원(3.5%)
방문자	에버랜드(62.3%), 한국민속촌(18.5%)	에버랜드(51.2%), 한국민속촌(24.4%), 탄천(4.9%), 한택식물원(4.9%)
공무원	에버랜드(53.9%), 한국민속촌(40.8%), 광고산(2.6%), 와우정사(2.6%)	에버랜드(40.9%), 한국민속촌(15.0%), 자연휴양림(13.4%), 농촌테마파크(4.7%)
사업 시행자	에버랜드(57.1%), 한국민속촌(14.3%)	에버랜드(45.3%), 한국민속촌(18.8%), 광고산(4.7%), 석성산(3.1%)
전체	에버랜드(48.7%), 한국민속촌(25.8%), 광고산(4.1%), 와우정사(1.7%)	에버랜드(44.9%), 한국민속촌(19.5%), 자연휴양림/광고산(5.6%), 단국대학교(2.2%)

자연요소, 학교 등 다양한 장소가 추천되어 다양한 장소가 좋은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한택식물원이나 탄천, 농촌테마파크 등 2001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자연적인 장소가 추천되고 있어 200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로 좋은 장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용인시 훼손 장소(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

용인시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소에 대한 조사에서는 2001년에는 하천, 난개발지역, 재래시장, 아파트 공사현장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12년에는 경전철, 신갈오거리, 아파트단지, 시청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

표 5. 용인시 훼손 장소(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

구분	2001년 조사결과	2012년 조사결과
시민	하천(18.1%), 난개발지역(7.5%), 신갈저수지(5.3%), 쓰레기장(5.3%)	시청(13.6%), 신갈오거리(8.5%), 경전철(6.8%), 한국민속촌(5.1%), 에버랜드(5.1%)
방문자	난개발지역(10.3%), 골프장(7.7%), 아파트공사현장(6.4%), 신갈오거리(6.4%)	에버랜드(13.3%), 아파트 단지(10.0%), 난개발 지역(6.7%), 경전철(6.7%)
공무원	하천(24.4%), 재래시장(8.9%), 신갈저수지(3.3%), 신갈오거리(3.3%)	신갈오거리(17.8%), 경전철(12.9%), 아파트 단지(8.9%), 터미널(4.0%)
사업 시행자	아파트공사현장(25.0%), 난개발지역(20.0%), 하천(10%)	경전철(26.0%), 신갈오거리(8.3%), 수지권역(6.3%), 시청(4.2%)
전체	하천(17.3%), 난개발지역(7.4%), 재래시장(5.4%), 아파트 공사현장(5.1%)	경전철(15.4%), 신갈오거리(11.5%), 아파트 단지(7.3%), 시청(4.2%)

하천의 경우, 2001년에는 가장 보여주기 싫은 장소로 나타났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탄천을 정비 하면서 경관적 변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전철과 시청은 2012년에 새롭게 보여주기 싫은 장소로 등장한 대상으로 조사되어, 용인시를 상징하는 요소 이면서 동시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전철의 경우에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용인시를 상징하는 동시에 도심을 관통하면서 생기는 육중한 구조물이 폐쇄적이고 삭막한 경관을 만드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청은 최근 지적되고 있는 호화청사 논란과 관련이 있어 보여주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파악된다.

4) 전체 도시경관에 대한 이미지

용인시 전체 도시경관에 대한 이미지를 5점 척도로 구성된 28쌍의 경관형용사를 이용하여 조사하여 지난 10여 년간의 경관이미지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1년 조사 결과에서는 용인시 이미지는 개성있고(0.3462), 다양하고(0.3331), 웅장하고(0.3167), 정돈되고(0.3167), 편리한(0.2760) 등의 다소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2012년 조사에서는 넓고(0.5861), 어수선하며(-0.3346), 평범하고(-0.3204), 현실적이고(-0.2738), 사실적인(0.2671) 이 이미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차이는 초기의 다양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용인지역은 서울 및 분당 등의 도시지역과 인접하여 도시적 편의시설과 함께 농촌적 특성을 가진 전원도시로서 개성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로는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다른 신도시들과 유사한 평범한 이미지로 변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1년과 2012년의 각 형용사별 이미지 변화를 T-test를 통해 통계적 차이를 검증한 결과, '따뜻하다-차갑다'(t=-0.254, sig.=0.800), '활기있다-조용하다'(t=-1.904, sig.=0.057), '고전적이다-현대적이다'(t=1.800, sig.=0.072)를 제외한 모든 형용사쌍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큰 이미지 변화를 보인 것으로는 '개성있다-평범하다'(0.6665), '정돈되다-어수선하다'(0.6513), '넓다-좁다'(0.5030), '다양하다-단순하다'(0.4782), '편리하다-불편하다'(0.46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용인시의 이미지가 그 동안 더 평범하고, 어수선하며, 넓으며, 단순하고, 불편한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2000년대 이후의 과다한 개발, 아파트 위주의 개발이 용인시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고밀도의 개발이 다른 신도시들과 유사한 경관들을 조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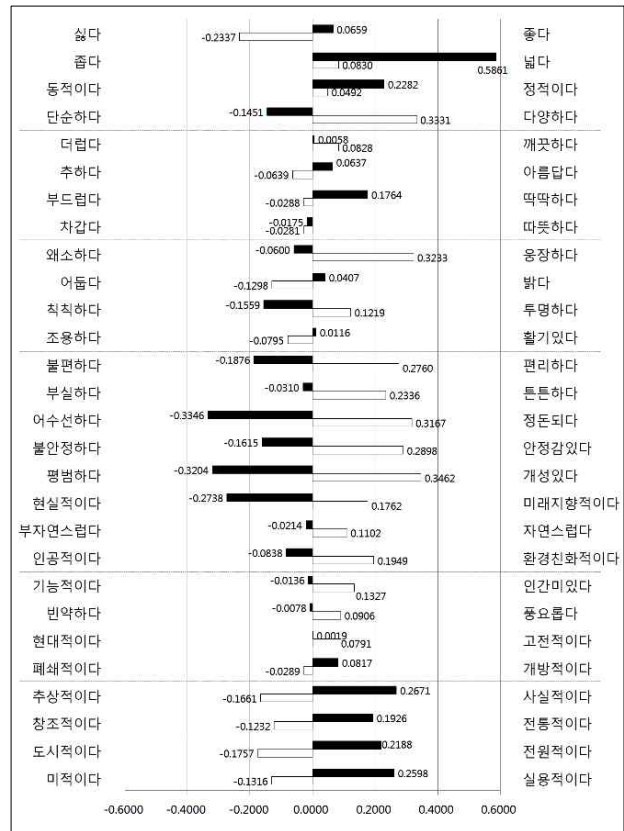


그림 1. 용인시 경관 이미지(형용사 평가) 변화(2001~2012년)
 범례: □: 2001년, ■: 2012년

2. 경관유형별 경관 평가

1) 개별 경관유형별 평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개별 경관유형에 대해서 5점 척도로 경관평가를 실시하였다. 2001년에는 '산의 조망'이 3.492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된 경관요소였으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요소는 '도로에서 보는 마을 풍경', '관광지 주변', '문화재 주변'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경관요소였다.

2012년에도 '산의 조망'이 3.615로 가장 긍정적인 경관요소였으나, 긍정적으로 평가된 요소가 '도로에서 보는 마을 풍경', '문화재 주변', '관광지 주변', '저수지 주변', '공원', '가로수 화분', '공공건물', '건축물 높이'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요소의 수가 늘어났으며, 평가결과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참조).

2001년과 2012년의 평가결과 차이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산의 조망'(t=1.848, sig.=0.0648), '관광지 주변'(t=1.159, sig.=0.2467), '색채'(t=1.612, sig.=0.1071), '간판과 광고물'(t=0.333, sig.=0.7391)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에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별 경관요소 수준에서 비교해 볼 때 2012년이 2001년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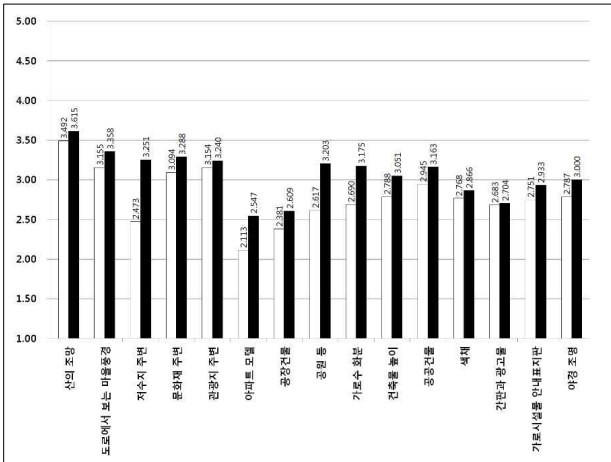


그림 2. 도시경관 요소에 대한 평가의 변화
 범례: □ 2011년, ■ 2012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도시 경관유형별 훼손 요인

산림경관, 하천경관, 도로경관 등의 경관유형별로 훼손 요인에 대해서도 다중선택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산림경관에 대해서는 2011년에는 택지개발아파트(31.9%)와 골프장(28.1%)이 가장 큰 훼손요인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2012년에는 택지개발아파트(21.7%), 골프연습장(19.8%), 공장(18.7%), 골프장(17.7%) 등 다양한 요인들이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3 참조).

하천경관에 대해서는 2011년에는 하천변 청결상태(34.6%)와 하천변 불량시설(25.2%)로 가장 큰 훼손 요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012년에는 하천변 불량시설(22.4%), 하천변 콘크리트 제방(20.5%), 하천변 청결상태(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2011년에 비해 청결상태는 개선되었으나, 아직 주변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6. 산림경관 훼손 요인

구분	2011년		201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골프장	771	28.1	127	17.7
골프연습장	322	11.7	142	19.8
공장	365	13.3	134	18.7
택지개발아파트	877	31.9	156	21.7
대형물류시설	181	6.6	85	11.8
주유소	49	1.8	16	2.2
유원지/관광지	151	5.5	16	2.2
기타	30	1.1	42	5.8
계	2,746	100.0	718	100.0

표 7. 하천변 경관문제점

구분	2011년		201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축물에 의한 조망차단	320	11.4	76	10.5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98	3.5	72	9.9
교량의 외관	105	3.8	62	8.5
하천변 콘크리트 제방	359	12.8	149	20.5
하천변 불량시설	705	25.2	163	22.4
하천변 주차장	213	7.6	43	5.9
하천변의 청결상태	967	34.6	145	19.9
기타	30	1.1	17	2.3
계	2,797	100.0	727	100.0

표 8. 고속도로/국도변 경관문제점

구분	2011년		201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층아파트	434	15.7	73	10.1
비닐하우스	277	10.0	86	11.9
공장 시설물	565	20.4	119	16.4
간판 및 옥외광고물	290	10.5	162	22.4
음식점	132	4.8	12	1.7
옹벽 및 방음벽	207	7.5	98	13.5
건축물/시설물 색채	209	7.5	69	9.5
공사현장	635	22.9	95	13.1
기타	22	0.8	10	1.4
계	2,771	100.0	724	100.0

도로경관에 대해서는 2011년에는 공사현장(22.9%), 공장시설물(20.4%), 고층아파트(15.7%) 등이 훼손요인으로 꼽혔으나, 2012년에는 훼손요인으로 간판 및 옥외광고물(22.4%), 공장시설물(16.4%), 옹벽 및 방음벽(13.5%), 공사현장(13.1%)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이러한 결과로 판단해 보건데, 개발이 한창 진행될 2011년 당시에는 공사현장, 고층아파트 등이 도로경관에서 경관저해요인으로 작용한 반면에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간판이나 옥외광고물, 옹벽 및 방음벽 같은 요소들이 도로경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도시 경관요소에 대한 인식

1) 간판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

간판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간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2011년과 2012년 모두 도시미관을 해치고, 목적지 찾는데 도움을 잘 주지 못하는 등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표 9 참조). 다만, 시간이

표 9. 간판에 대한 인식 비교

구분	조사시기		T test	
	2001년	2012년	t	sig.
혼란스럽고 도시미관을 해친다	2.403	2.415	0.2430	0.8080
거리를 재미있고 활기차게 만든다	1.790	1.886	1.8177	0.0693
위험하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다	2.263	2.103	-2.9205	0.0036
목적지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2.136	2.331	3.1004	0.0020

1: 부정적, 5: 긍정적

표 10. 옥외광고물에 대한 경관문제점

구분	2001년		201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옥외광고물의 색채	293	14.3	44	13.2
옥외광고물의 크기	493	24.0	76	22.8
옥외광고물의 모양	160	7.8	53	15.9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	477	23.2	48	14.4
옥외광고물의 개수	458	22.3	81	24.3
옥외광고물의 조명	174	8.5	31	9.3
계	2,055	100.0	333	100.0

지나면서 보행인을 위협하고 교통지장을 초래하게 변화하였으나(t value=-2.9205, sig.=0.0036), 목적지를 찾는데 약간 긍정적으려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value=3.1004, sig.=0.0020). 이러한 변화는 간판이 대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목적지 찾기에는 도움이 되나, 보행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의 경관적 문제점에 대해 다중응답방식으로 조사하였다. 2001년에는 크기(24.0%), 설치위치(23.2%), 개수(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개수(24.3%), 크기(22.8%), 모양(15.9%), 설치위치(14.4%) 등의 순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0 참조). 전반적으로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2001년에는 관심이 적었던 광고물의 모양에 대해서 2012년에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사각형 위주의 형태에서 다양해지고 있는 광고물의 형태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파악할 수 있겠다.

2) 가로시설물에 대한 인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가로시설물에 대해서 다중응답방식으로 조사하였다. 2001년과 2012년에 모두 유사하게 휴지통, 버스정류소, 벤치, 가로등 등의 시설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휴지통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그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 특징이 있었으며, 공중전화는 2001년 8.0%에서 2012년 4.7%로 역시 상당히 비율이 줄어들었다. 휴지통에 대해서는

표 11. 개선이 필요한 가로시설물

구분	2001년		201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벤치	360	11.4	53	10.8
파고라	81	2.6	29	5.9
버스정류소	319	10.1	45	9.2
횡단보도	284	9.0	27	5.5
가로등	303	9.6	50	10.2
휴지통	576	18.3	75	15.3
공중전화	252	8.0	23	4.7
화분	131	4.2	18	3.7
안내판	189	6.0	32	6.5
택시정류장	114	3.6	10	2.0
철책	70	2.2	26	5.3
보도포장	202	6.4	38	7.8
수목보호대	86	2.7	32	6.5
자동판매기	85	2.7	14	2.9
블라드	95	3.0	18	3.7
계	3,147	100.0	490	100.0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공중전화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어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동시에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3) 경관색채에 대한 인식

다음은 경관색채에 대해 문제가 심각한 대상을 다중응답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2001년에는 간판 및 광고물(14.5%), 공장시설(12.8%), 상가건물(12.3%), 공사시설물(9.6%) 등의 순서로, 2012년에는 상가건물(17.7%), 간판 및 광고물(16.5%),

표 12. 경관색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대상

구분	2001년		201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아파트	166	7.6	16	4.6
상가건물	267	12.3	61	17.7
공장시설	280	12.8	39	11.3
공공건물	147	6.7	31	9.0
가로시설물	169	7.8	26	7.5
교량 및 고가도로	121	5.6	17	4.9
간판 및 광고물	316	14.5	57	16.5
안내표지판	120	5.5	21	6.1
현수막	186	8.5	32	9.3
도로변 대형광고물	197	9.0	28	8.1
공사시설물	210	9.6	17	4.9
계	2,179	100.0	345	100.0

공장시설(11.3%), 현수막(9.3%) 등의 순서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12 참조). 상가건물이나 간판 및 광고물, 현수막 등의 상업 및 광고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증가하였으나, 공사시설물, 공장건물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초반에는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공사 관련 대상이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대상이었으나, 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상업시설들과 부속 광고물들이 주로 용인시 경관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파트 색채에 대해서는 7.6%에서 4.6%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색채를 포함한 경관심의 등 다양한 경관관리 수단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

경관과 관련한 주민참여 정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경관향상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는데 찬성하는 정도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2001년과 2012년 조사에서 각각 3.756, 3.489로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2012년에는 2001년에 비해 다소 재산권 제한에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t=-3.549, df=1283, sig.=0.000$).

다음으로는 경관가꾸기 사업과 같이 직접 경관을 개선하는데 참여하겠는가에 대한 참여정도를 역시 4점 척도¹⁾로 조사하였다. 2001년에는 3.098, 2012년에는 2.844로 모두 중간점인 2.5점 이상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참여정도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다소 경관가꾸기 사업 참여에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t=-5.865, df=1284, sig.=0.000$).

경관에 대한 관심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2001년에는 3.728, 2012년에는 3.652로 비교적 경관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1년에 비해 2012년의 관심도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어($t=-1.655, df=1946, sig.=0.098$), 경관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용인시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경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경관향상을 위한 참여나 재산권 제한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와 직면했을 때에는 시민들은 소극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5. 경관계획 방향성에 대한 인식

용인시가 경관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상에 대해 다중응답형식으로 조사하였다. 응답결과, 2001년에는 쾌적한 도시(20.2%),

표 13. 경관개선의 목표상

구분	2001년		201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개성있는 도시	195	6.8	67	6.8
풍요로운 도시	320	11.1	86	8.7
매력있는 도시	154	5.3	86	8.7
아름다운 도시	315	10.9	86	8.7
새로 태어나는 도시	177	6.1	40	4.0
쾌적한 도시	582	20.2	160	16.2
주민에 의한 도시	206	7.1	48	4.8
역사/문화가 있는 도시	364	12.6	132	13.3
상징적인 도시	58	2.0	35	3.5
센스 있는 도시	30	1.0	21	2.1
세련된 도시	89	3.1	40	4.0
운치있는 도시	135	4.7	49	4.9
안정감있는 도시	115	4.0	64	6.5
인간적인 도시	105	3.6	44	4.4
통일감있는 도시	37	1.3	23	2.3
기타	0	0.0	9	0.9
계	2,882	100.0	990	100.0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12.6%), 풍요로운 도시(11.1%), 아름다운 도시(10.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2012년에는 쾌적한 도시(16.2%),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13.3%), 풍요로운 도시, 매력있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가 각각 8.7%로 조사되었다. 2001년과 2012년 사이에서 나타난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쾌적하고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도시를 매력있게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다중응답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2001년에는 산의 수목/능선 보호(18.3%), 하천/저수지 정비(17.6%), 공원/광장 조성(16.4%), 문화재 보존(11.8%), 상징 장소/상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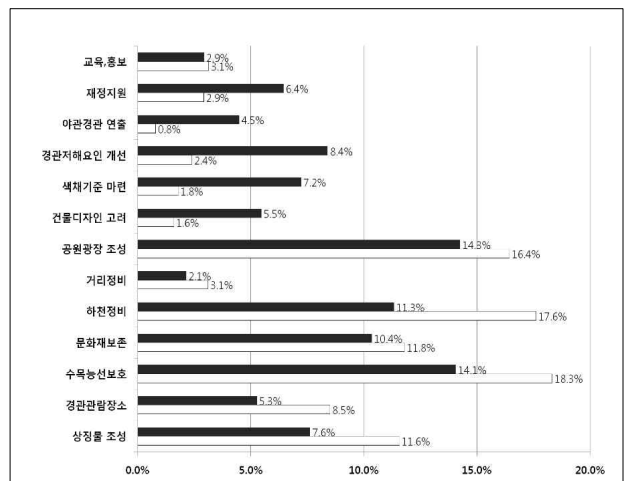


그림 3. 매력있는 도시 만들기 방안
 범례: ■ 2012년, □ 2001년

조성(11.6%) 등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는 공원/광장 조성(14.3), 산의 수목/능선 보호(14.1%), 하천/저수지 정비(11.3%), 문화재 보전(10.4%)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2001년과 2012년 모두 자연경관자원, 역사문화 경관자원 등에 대한 정비가 도시 매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2001년에 비율이 낮았던 방안들이 2012년에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항목들이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면 재정지원(2.9%→6.4%), 야간경관 연출(0.8%→4.5%), 경관저해요인 개선(2.4%→8.4%), 색채기준 마련(1.8%→7.2%), 건물디자인 고려(1.6%→5.5%)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관개선 방안들이 2012년 들어 그 상대적 중요성이 늘어난 항목들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지난 10여 년간 경관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수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6. 경관관련 주체들에 대한 인식

경관과 관련된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다중응답방식으로 조사하였다. 2001년에는 지도 및 유도(47.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규제 추진(28.5%), 시민 지원(22.8%)로 나타났으나, 2012년에는 지도 및 유도(44.1%), 시민 지원(33.6%), 규제 추진(16.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관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및 유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행정기관의 역할로 꼽았으나, 과거 규제 중심의 생각이 시민지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경관과 관련해서 규제 중심의 정책을 진행할 때 시민들의 반발이 매우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다중응답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2001년에는 자연훼손 방지가 60.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심각한 자연훼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2012년에는 자연훼손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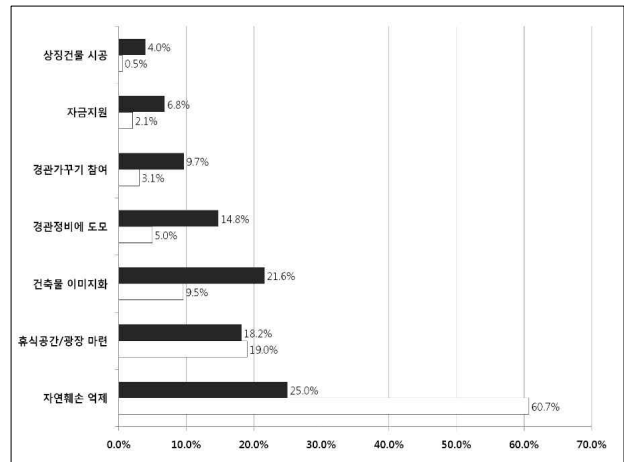


그림 4.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
 범례: ■ 2012년, □ 2001년

지(25.5%), 용인시 이미지에 부합된 건물 조성(21.6%), 휴식 공간, 광장 등의 조성(18.2%)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초기 개발만 우선하던 사업시행자들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역할로 경관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경관을 얼마나 고려하느냐에 대한 시민 의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2001년에는 2.762로 비교적 부정적인 반응이었으나, 2012년에는 3.196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916$, $df=1284$, $sig.=0.000$). 즉, 시민들은 사업시행자들이 2001년에 비해 경관을 좀 더 고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용인시가 2001년 경관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계획수립, 건축심의를 통한 경관 고려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경관 측면에서 시민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V. 결론 및 고찰

이상에서 용인시를 대상으로 2001년과 2012년 경관계획을 위한 경관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지난 10여 년간의 경관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관현황에 대한 평가에서는 용인시의 상징요소와 대표장소로 2001년과 2012년 모두 에버랜드가 압도적이지만, 2012년에는 에버랜드의 비중이 낮아지고, 한국민속촌, 시청, 경전철과 같은 다양한 대상으로 분산되고 있었다. 훼손장소는 2001년 하천, 난개발 등에서 2012년 경전철과 시청으로 조사되었다. 도시 경관에 대한 이미지는 2001년 개성있고, 다양하고, 웅장하고,

표 14.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민 인식

구분	2001년		201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민의 경관 가꾸기를 지원해야 한다	252	22.8	60	33.6
기준을 만들어 지도하고 유도한다	524	47.5	79	44.1
조례나 규제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315	28.5	30	16.8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13	1.2	10	5.6
계	1,104	100.0	179	100.0

정돈된 이미지에서 2012년에는 넓고, 어수선하고, 평범하고, 현실적인 이미지로 변화하였으며, '개성있는' 항목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경관현황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경관에 대한 관심이 다양해진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과도한 사업이나 획일적인 개발로 인해 용인시 특성을 살리지 못하여 전반적인 경관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관유형별 평가에서는 산의 조망, 관광지 주변, 색채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아파트와 골프장 등이 산림경관을 훼손하고, 하천변 시설과 제방 등이 하천경관을 훼손하며, 공사현장, 광고물, 방음벽 등이 도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다만, 2012년이 2001년 보다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관요소별로는 간판 및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2012년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분석되었다. 개별 요소별로는 공사시설물, 공장건물 등과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감소하고, 경관색채 측면에서는 상업 및 광고시설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서, 개발이 일정 부분 이상 종료된 이후에는 상업시설과 부속 광고물이 경관훼손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관과 관련한 주민참여 정도 조사에서는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한 반면에, 재산권 제한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 같은 실제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계획 방향성에 대한 인식은 쾌적하고, 역사와 문화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거에 비해 보다 재정지원, 야간경관 연출, 경관저해요인 개선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중요시 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

경관주체들에 대한 인식에서 행정기관에 대해 과거 규제중심의 역할에서 시민지원의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자연훼손의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이미지에 부합되는 건물조성, 휴식공간이나 광장의 조성 등과 같은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용인시 경관계획 수립 시 진행된 경관의식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난 10여 년간의 경관의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용인시에 대한 경관인식은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경관을 인식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으나, 과거 개성적이던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의미하는 것이 매우 큰 변화라고 판단한다. 용인시는 경관법 제정 이전 비법정계획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였으나, 지난 10여 년 동안의 과도한 개발로 인해 경관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한 채 평범한 이미지로 평가되어 선도적인 이미지가 희석되고 퇴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현재 새롭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신도시지역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시민들의 경관과 관련한 참여정도가 소극적으로 변화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경관에 대한 관심도는 비교적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나, 재산권 제한과 같은 실제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변화를 보인 것은 그 동안의 경관정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경관이 개인들에게 체감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개인들의 노력이 직접, 간접적으로 개인들에게 긍정적인 급부로 돌아갈 수 있는 계획과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10여 년간의 경관관련 정책과 사업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그 동안의 경관계획과 정책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개인들의 체감하기 어려운 대상을 위주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규제중심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행정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시민지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변화한 점도 경관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판단한다. 이는 규제수단으로는 이제 경관변화를 이루기에 매우 어렵게 되었으며, 성공적인 경관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경관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시계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 수집이 용이한 용인시라는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용인시는 과거 10여 년간 급속도로 개발이 진행되어 다른 지역과는 상당히 다른 경관적 특성을 가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용인시의 지난 10여 년 간의 경관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것으로 한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시민참여의 중요성과 같은 일부 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용인시 외에 다른 지역들에 대한 시계열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향후 경관계획과 경관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경관법 제정 이전의 경관인식에 대한 분석자료는 현재 부족한 상태이나, 경관법 제정 이후 많은 경관계획이 진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된다면 향후 경관계획과 경관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는 연구결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 1. 이러한 경우에는 5점 척도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2001년 조사 시 이미 4점 척도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4점 척도를 사용하게 되었다. 조사에 사용된 4점 척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4) - 상황에 따라 참여하겠다(3) - 참가하고 싶지 않다(2) - 전혀 참가하지 않겠다(1)' 로 구성되었다.

인용문헌

1. 건설교통부(2007) 경관계획수립지침.

2. 경기개발연구원(2000) 경기도 경관기본계획.
3. 경기개발연구원(2001) 용인시 경관형성기본계획.
4. 박동윤(2005) 일본 도시경관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지바(千葉)시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관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6(3): 19-36.
5. 김봉경, 오세경, 임재문(2009) 일본의 경관법 시행에 따른 경관행정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0(1): 5-20.
6. 김이수, 조유경, 황재훈(2006) 충청북도 경관 인식측정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6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24-36.
7. 김포시(1999) 도시경관기본계획.
8. 김희재, 오성용, 류중석, 배응규(2008) 경관기본계획의 구성내용별 국내 사례 특성분석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2008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179-189.
9. 문지원(2009) 경관법 제도에 기초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계획 보완방향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7(2): 67-80.
10. 문지원(2011) 경관계획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 연구. 국토계획 46(6): 5-19.
11. 박은아, 윤영미, 안재락(2011) 협력적 계획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체간 갈등 및 조정에 관한 연구-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011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50-65.
12. 변재상, 김대수, 이정수(2010) 대전시 상징물과 도시 이미지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8(2): 53-63.
13.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3)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1.
14.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a) 서울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안).
15.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b) 서울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2.
16. 손용훈, 윤문영(2011) 근교도시의 녹지경관 유형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관인식. 한국조경학회지 39(5): 101-110.
17. 용인시(2012) 용인시 기본경관계획.
18. 윤준도, 조상규, 최윤정, 전선정 (2009)경관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9. 이경록(2008)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경관위원회의 역할과 주민참여활성화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이정형, 이여경(2008) 지자체 경관시책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경관법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5): 229-240.
21. 장혜선, 변혜선(2009) 군지역에서의 기본경관계획 수립특성: 청원군을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009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697-706.
22. 장혜선, 변혜선, 황재훈(2010) 도농복합도시에서의 경관자원분석에 따른 기본경관계획 수립특성: 충주시를 대상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2010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167-176.
23. 조유경, 공은미, 김영옥(2011) 경관제어요소에 관한 전문가집단 간 인식 차이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9(2): 29-39.
24. 주신하, 김영희(2010)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현황. 한국경관학회지 2(2): 20-31.
25. 주신하, 김영희(2011) 국내 경관계획 관련지침 및 계획내용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9(4): 1-10.
26. 황재훈, 류경무(2001) 청주시 성안길 상업가로의 집단별 경관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1): 7-22.
27. 가와사끼시(1996)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28. 도쿄도 기타구(1994) 기타구 도시경관만들기 기본계획.
29. 도쿄도(1994) 일본 도쿄도 도시경관마스터플랜.
30. 샌다이시(1997) 샌다이시 경관기본계획.
31. 지바시(1997) 지바시 도시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원 고 점 수 일: 2012년 8월 10일
 심 사 일: 2012년 9월 4일(1차)
 계 재 확 정 일: 2012년 9월 14일
 3인익명 심사필